



2018년 1월 28일(제861호) 연중 제4주일(해의 원조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권위, 이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국어사전에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권위를 표현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권위적, 권위 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며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권위적이지 않고 권위를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지닌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오로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말과 행동에 모두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또 권위를 지닌 분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짐과 대화와 소통이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 동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 올바른 권위

사실 이런 권위를 지녀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 힘이 있는 권위를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해서 권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권위적인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이나 어떤 단체이든 지도자는 많은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잘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무심코 권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권위를 지닌 것으로 착각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유혹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대화 하려고 노력할 때 올바른 권위를 지닐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목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습니다.



상영신(보니피시오) 신부  
동해(해군 1원대) 성당 주임

- |                |   |
|----------------|---|
| <b>제 1 독 시</b> | 신명 18,15-20   |
| <b>회 답 송</b>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 <b>제 2 독 시</b> | 1코린 7,32-35   |
| <b>복음 권호송</b>  | ◎ 알렐루야<br>○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br>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
| <b>복 음</b>     | 마르 1,21-28  |
| <b>영 성 제 송</b> |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br>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

# 진례를 살다

옛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주(예수)의 이름으로 갑니다.” 이 대답은 미사에서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였다는 확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 역시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것도 적절한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손님들이 주인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는 좋은 관습과 같은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Ite, missa est.” (“미사가 끝났으니,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찬례로부터 개인적으로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협력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협력하도록 파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임된 일을 자신의 처지에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심이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로 되돌아갑니다. 미사를 통해 힘을 얻은 모든 이들이 공동체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파견됩니다. 사제의 파견 및 퇴장과

# 미침예식

더불어 공적인 전례 집회는 모두 끝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사 후에 공동 기도를 바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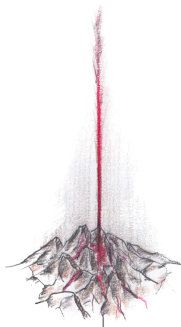
여기서 미사의 엄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요소들에 대해 부연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사 중의 사진촬영은 가능한 한 삼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감사 기도에서 예수의 말씀을 바칠 때는 모든 회중이 그 말씀에 경건히 귀를 기울여야 하므로,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밖에 미사에 지각하는 것, 쓸데없이 성당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지나친 기침소리와 어린 아기들의 울음소리 등도 다른 사람들에게 분심을 갖게 하고 분위기를 해치므로, 서로 삼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미사를 거행하는 성당 안이 장터처럼 시끄러워서는 안 되겠습니까? 아울러 주례자인 사제는 먼저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미사를 거행해야 엄숙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회중이 경건한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묵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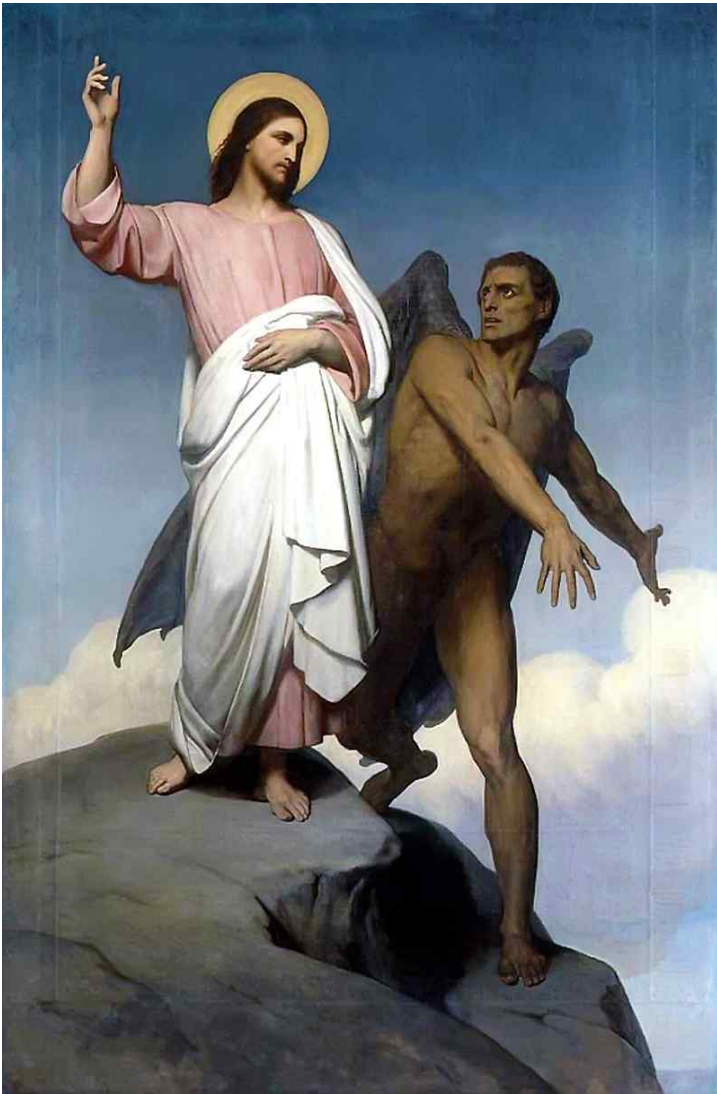
## 열정

지축을 흔들고  
 땅을 가르고  
 불을 내 뿜는  
 그런 열정이  
 내 심장에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겠지요.

상화이야기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시는 예수님



이리 세페르(1795-1858)  
 1854년경 작  
 캔버스 위 유화 75.5 x 55.0 cm  
 국립 미술관, 미국 댈러스

세페르는 네덜란드 태생이지만, 부친을 따라 화가가 된 후 파리에 와서 활동하며, 한가지로 정의하기 힘든 스타일을 구사하였고, 이 당시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특히 성경 내용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그렸고 후기에는 상징성이 다분한 작품들을 그려냈다. 이 당시에는 그의 그림이 너무나 그가 그려낸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실제 사람의 크기 처럼 큰 것들이 많았고, 인기 있는 주제들은 작은 크기로 다시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 그림은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시도하는 악마를 그린 그림이다.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 때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내치시고, 사람들은 이에 놀라워한다. 이처럼 이 그림에서도, 예수님이 들어 올리신 손에서 힘이 느껴진다.

“이게 어찌된 일이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이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마르 1,27)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4주일: 탐리대 김진수 신부

◆ 교구장 동정

- 연무대(육군훈련소) 성당 사목방문  
 때: 1월 28일(주일)
- 참사회의  
 때·곳: 1월 30일(화) 13: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다'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